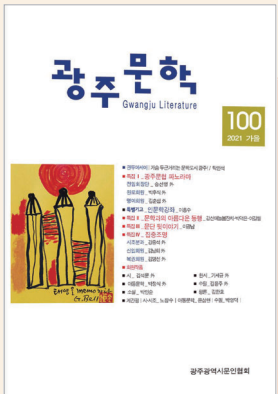


지역문학의 파노라마를 담다

광주문협 '광주문학' 100호 특대호 발간 문학도시 제안...회원 161명 장르별 참여



광주문학 100호

광주문인협회(회장 탁인석)가 발간하는 '광주문학' 100호가 나왔다.

광주문학은 1987년 창간호를 펴낸 이후 100호를 발행하는 동안 광주 문학인들의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과 특집을 통해 광주문학의 비전을 제시해 왔다.

열악한 문단의 편집 여건으로 볼 때 100호의 의미는 다양한 뜻이 함의되어 있다. 광주문학은

35년이라는 시간 속에 광주문학의 정체성과 더불어 광주만의 문학 담론을 오롯이 담아왔다. 초창기 연간집으로 내던 때도 있었지만 2000년 이후 계간문예지로 정착해 800여 광주 문인들에게 소중한 작품 발표지면을 제공하며 광주문단의 저수지 역할을 해왔다.

이번 100호에는 11명의 전임회장의 근황과 대표작, 원로회원, 명예회원, 신입회원, 복권회원과 지난호 계간평, 일반 회원 작품 등을 담았다. 특별기고 '문학을 왜 읽어야 하는가'에서 이흥수 전남대 명예교수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 등을 생각하면 숙연해지고 어려워지는 문제들을 성찰해 보도록 촉구하는 것이 문학 읽기"라고 전제하고 문학은 불안하게 잠든 인간의 의식을 일깨우고 확장시켜 준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문단 활동 외에 화가로서도 활발한 활동과 업적을 쌓으며 현장에서 후배 작가 양성에 열정을 기울이고 있는 박덕은 시인과 편집주간 김정희 시인의 대답은 우리 시대의 문학적 낭만성에 대한 깊이를 짚어준다.

또 광주문협과 협약 체결 단체인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이길행 총재를 김용주 시인이 만나 봉사활동과 문학을 병행하는 이 총재의 활약과 라이온스 활동 및 문학의 연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문단의 뒷마당을 들여다보며 '광주 문단사'를 집필해 준 소설가 이광남의 '광주문단 뒷이야기'는 문단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궁금한 작가 이야기와 함께 담고 있어 행간을 읽는 재

미가 솟아난다.

광주문학 100호 기념 특대호는 740여 쪽으로 평소 지면의 3배 가까운 방대한 지면에 161명의 광주문협 회원이 각 장르별로 참여하고 있다.

탁인석 광주문협 회장은 매년 늘고 있는 광주문협 회원들과 함께 광주문학 100호 특대호 발간을 자축하며 '가슴 두근거리는 문학 도시 광주'를 위한 세 가지 역점 사업을 제안했다. 첫째는 광주의 대표적 문학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 둘째는 2022년 국제PEN 한국본부와 함께 세계 한글작가대회를 광주에서 유치해 진행하는 것, 셋째는 시가 일상이 되는 도시를 위한 편집 실무를 맡고 있는 김정희 편집 주간은 "이번 100호는 광주문학이 도달한 한 지점일 뿐 완성이 아니며 200호, 300호를 향한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한 작가의 꿈이 한 나라의 모습을 바꿀 수 있음을 광주문학으로 실천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연수 기자

세책 나왔어요

◇향단이 생각= 2011년 계간 '시와사랑'으로 등단한 정홍순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 '향단이 생각'이 문학의전당 시인선으로 출간됐다. 그의 시는 역동적인 저항성이 서정성과 융합해 독자적이면서도 독특한 목소리를 자아낸다. 문학의전당. 124쪽.

◇일상이 슬로우= 에어비엔비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카피를 쓴 신은혜의 느낌예찬. 익숙함 속에 봉인되었던 모든 순간의 반짝거림을 일깨운다. 평범한 일상이 '천천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 꽃과 같음을 알아차리게 한다. 책 읽는고양이. 208쪽.

◇물음을 위한 물음=사색자, 사회학자 윤여일의 열 번째 책. 저자는 2010년대를 살아가며 정신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긴 사건과 현상들을 파고들어 거기서 숙고해야 할 물음들이 무엇인지 건네내고자 했다. 갈무리. 320쪽

◇마음의 숲을 걷다=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영성전문가이자 심리학자인 스티브 테일러는 왜 우리가 몸보다 마음이 바뀔지, 현대인이 불안과 관태, 불만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어간다. 파피에. 304쪽.

◇이주여행자=김유석 시인의 시집으로 시작시인선0389번으로 출간됐다. 전복 임실 출생으로 2021년 '서정문학'과 '문학의 오늘'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천년의시작. 148쪽. /이연수 기자

소울싱어즈 리더 김정아 '잘나가는 꼬까언니' 출간

세상 편견 극복하는 소통과정 글과 그림으로 풀어내



잘나가는 꼬까언니

풍백미디어가 올해 시작한 '젊은 작가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울싱어즈 리더이자 보컬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김정아 작가를 발굴, 그림에세이 '잘나가는 꼬까언니'를 출간했다.

김 작가는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으며, 세상과의 소통이 서툰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담은 글과 그림을 책으로 엮어냈다.

'잘나가는 꼬까언니'는 총 4장 128개의 이야기와 그림을 담고 있다. 작가는 불행했던 시절의 방향과 사람에 대한 사랑

과 믿음, 소망 등을 재치 있는 글과 그림으로 풀어낸다. 각 이야기마다 독특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를 만나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짓게 된다. 때론 웃음으로, 때론 눈물과 공감으로, 때론 동정 어린 눈빛으로, 때론 이웃집 언니와 같은 편안함으로 작가와 마주할 수 있다.

작가만이 그려낼 수 있는 독특한 그림들은 독자들에게 공감과 감동, 위로와 힐

링을 선사한다.

'잘나가는 꼬까언니'의 부제는 '자존감이 돌아왔다'다. 힘든 현실 속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때, 문득 '나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이 책이 삶의 희망,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풍백미디어. 200쪽. /이연수 기자

추석 연휴 베스트셀러는?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교보문고 9월 넷째주 집계



작별하지 않는다

올 추석 연휴에 독자들은 어떤 책을 가장 많이 읽었을까. 교보문고가 발표한 9월 넷째 주 온·오프라인 종합 베스트셀러 집계 순위에 따

르면 소설가 한강이 5년 만에 펴낸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1위를 차지했다.

출간과 함께 1위를 차지한 '작별하지 않는다'는 2주째 베스트셀러 정상을 지켰다. 소설은 제주 4·3을 세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소설가인 주인공 경하가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 친

구 인선의 제주도 집에 가서 어머니 정심의 기억에 의존한 아픈 과거사를 기억하는 내용이다.

이미예의 판타지 소설 '달려구트 꿈 백화점 2'가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유명 유튜버 '신사임당' 주인공가 자기 개발자가 신영준과 함께 쓴 에세이 '인생은 실전이다'와 이미예의 '달려구트 꿈 백화점'이 그 뒤를 이었다.

이치조 미사키의 소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는 5위를, 에릭 와이너의 철학 에세이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는 6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장명숙 에세이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가요: 밀리너나 이야기' (7위),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 '백조와 박쥐' (8위), 매트 헤이그 소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9위), 유튜브 김도윤이 쓴 자기개발서 '력키'가 10위를 차지했다.

전자책 분야에서는 박완서 타계 10주기 헌정 개정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개정판)'가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상무 수(秀)치과 김수관 원장

‘익스퍼트스케이프(Expertscape)’

2020년 임플란트 수술 권위자, 한국 2위에 선정!!!



● 명품 임플란트, 보톡스, 턱관절 전문의
● 사랑니 발치 전문의
● 레이저 무통 수술



‘세계적 명의, 대한민국 Top Class, 대한민국 임플란트 수술 권위자 김수관 원장’
보건복지부 인증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인 상무 수(秀)치과의원 치의학박사 김수관 원장이 2004년부터 17년간 세계 3대 인명사전(미국, 유럽)에 등재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의학분야 논문평가기관인 의료 전문가 및 기관의 순위를 매기는 ‘익스퍼트스케이프 (Expertscape)’ 에 2020년 임플란트 수술 권위자 한국 2위에 선정 되었습니다.

수도권 지역 외 타지역 부분에서 임플란트 수술 전문가로 1위를 차지하며, 빛고를 광주에 임플란트 전문 수술 권위자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Expertscape는 세계에 발표된 치의학 관련된 연구 논문을 데이터뱅크화하여 치의학 연구 분야별로 전문가를 평가하여 연구자의 세계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무 수(秀)치과의 10가지 장점!

- 1 디지털 첨단 의료장비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임플란트 등을 진료하고 있는 치과
- 2 4,000건 이상의 임플란트 진료 건수와 5,000건 이상의 발치 건수 등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임플란트 치과
- 3 세계 3대 인명사전 최연소 등재 및 18년간 모두 등재한 치과의사
- 4 대학병원 치과병원장, 치과대학 학장, 5개 전국 규모 학회장 역임한 최연소 치과의사
- 5 치과분야 104건의 다양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출원중인 치과의사
- 6 치과에 관한 책을 100여권 발간한 치과의사
- 7 신문과 방송에 250여회 출연하는 등 30여년 동안 임상 경험과 다양한 치료 결과를 보여준 치과의사
- 8 200여회 특강을 하는 등 많은 치과의사와 후배를 가르치는 치과의사
- 9 항상 우선적으로 환자분들을 생각하고,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치료계획 수립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치료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분들과 가족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치과
- 10 오랜 기간동안 기부(13억여원)와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는 치과

상무역 1번 출구 DY빌딩 2층
상무수치과의원 Tel. 062-371-4028

평 일 오전 9:00~오후 6:30 (수요일 오전 휴진)
 야간진료 화요일 (오후 8:30까지)
 토요일 오전 9:00~오후 1:30